

어머니의 A유형 행동패턴 및 아동의 자아존중감과 행복감, 집행기능곤란 간의 구조적 관계

송재화¹⁾ 김리진²⁾

요약

본 연구는 어머니의 A유형 행동패턴 및 아동의 자아존중감과 행복감, 집행기능곤란 간의 구조적 관계를 밝히는 데 목적이 있다. 연구 대상은 한국아동패널 13차년도 조사에 참여한 만 12세 아동 1,217명과 그들의 어머니였다.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어머니의 A유형 행동패턴은 아동의 집행기능곤란에 직접적 영향을 미쳤다. 둘째, 아동의 자아존중감은 아동의 행복감을 통해 아동의 집행기능곤란에 간접적 영향을 미쳤다. 이 연구는 아동의 집행기능곤란을 증재하기 위해 환경 변인과 개인 변인을 통합적으로 고려해야 함을 시사하였고, 아동의 자아존중감과 아동의 집행기능곤란 간의 관계에서 아동의 행복감이 중요한 역할을 하였음을 보여주었다.

주제어: A유형 행동패턴, 자아존중감, 행복감, 집행기능곤란

I. 서론

교육부는 아동의 정신적, 사회적 건강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하면서 초등학교 1학년, 4학년,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 특수학교 아동을 대상으로 정서·행동 특성 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2022년 서울시 교육청 학생 정서·행동 특성 검사 결과발표에 의하면 서울시 초등학교 1학년, 4학년,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 학생 26만 4,614명 중 1.42%인 3,749명이 '자살 위험군', 5.09%인 1만 3,489명이 정서·행동 위기 '관심군'으로 분류되었다(문화일보, 2022). 이는 조사 대상 전체의 6.51%가 정서·행동 문제를 가지고 있으며 이에 대한 정확한 원인조사와 심리적 지원이 필요함을 의미한다(문화일보, 2022). 이와 관련

1) 전북대학교 아동가족학과 박사수료

2) 전북대학교 아동학과 부교수, 전북대학교 생활과학연구소 연구원

된 선행연구를 고찰하면, 아동의 정서·행동 문제는 개인적, 환경적 요인을 포함한 복합적인 요인에 의해 발생한다. 개인적 요인에는 집행기능곤란, 스마트폰 의존 등이 있으며(이경혜, 2018; 하문선, 2021), 환경적 요인에는 가족구조, 부부 갈등, 양육 행동 등이 있다(노지운·신나나, 2020; 황혜정, 1994). 이들 요인 가운데 ‘아동의 집행기능곤란’은 최근 아동의 정서·행동 문제와 긴밀한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으므로 본 연구에서는 아동의 집행기능곤란 변인에 초점을 맞추어 살펴보고자 한다.

집행기능은 인간의 인지, 행동 및 정서를 조직화하고 지시하는 능력으로 자기 조절적이고 통제적인 기능이다(이동형, 2009; Butterfield & Albertson, 1996; Gioia, Isquith, & Guy, 2001). 또한, 다양한 정보를 상황에 맞게 조절하고 합리적인 의사결정과 사회적 행동을 하게 하므로 이를 상위인지기능이라 한다. 아동의 경우, 집행기능은 자신이 처한 환경에 대한 적응과 학업 성취에 관여하며, 학교 적응 문제에 대해서 보호요인으로 작용한다(Diamond & Lee, 2011; Ursache, Blair, Stifter et al., 2013). 반면, 집행기능곤란은 아동의 주의집중, 정서 인식, 정서 조절, 행동 통제, 계획 수립 등에 문제를 일으키고 학교 적응 및 학업 수행과 같은 전반적인 학교 생활에 어려움을 겪게 한다(박정현·이경남, 2021; 이동형, 2009; Riggs, Blair, & Greenberg, 2003). 집행기능의 발달은 뇌의 전두엽 발달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므로 생물학적 요소의 중요성이 강조되어왔다(Blakemore & Choudhury, 2006). 집행기능이 전전두피질과 관련 있다는 것은 이 기능이 뇌 구조의 성숙과 관련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Welsh, Pennington, & Groisser, 1991). 집행기능은 아동기 초기인 만 5세에서 만 8세 사이에 유의미한 발달이 이루어지지만(Korkman, Kemp, & Kirk, 2001) 아동기 후기인 만 12세 경에도 추상적 개념에 대한 인지적 주의력이 높아지고 전략적인 기술을 활용한 인지적 처리가 가능해지면서 계획과 목표설정 및 수행에 관련된 부분의 발달이 이루어진다(Anderson, Anderson, Northam et al., 2001; Blakemore & Choudhury, 2006). 한편, 최근 집행기능 관련 연구를 살펴보면, 생물학적 요소뿐만 아니라 환경적 요소와 개인적 요소에 대한 연구들도 있다(이혜민·한유진, 2020; Micco, Henin, Biederman et al., 2009; Valcan, Davis, & Pino-Pasternak, 2018). 개인적 요소에는 아동의 자아존중감, 행복감, 미디어기기 사용 등이 있으며(권희경·김원경, 2020; 정은화·이현아·이지영 외, 2019) 환경적 요소에는 부모의 성격, 우울, 양육 행동, 부부 갈등, 학교환경 등이 있다(권희경·김원경, 2020; 임효진, 2022; Gueron-Sela, Camerota, Willoughby et al., 2018; Hughes, Roman, Hart et al., 2013; Micco, Henin, Biederman et al., 2009). 본 연구에서는 최신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집행기능곤란에 영향을 미치는 부모의 특성 및 아동 개인의 내적 특성에 대해 탐구

하고자 한다.

인간의 행동은 주변 환경이나 특정 상황에 적응하면서 나타나는 경향성이 있다. 이러한 경향성은 가정이나 직장에서 오랜 시간 동안 자연스럽게 나타난다. 인간의 행동이 경향성을 가지고 일정하게 나타내는 특성을 행동패턴(behavioral pattern)이라고 한다(김영희·이건웅·이승철, 2012). 행동패턴은 개인의 성격과 관련 있으며 외부자극에 반응하는 행동과 정서이다. 이 중 A유형 행동패턴은 짧은 시간 안에 많은 것을 성취하려고 하며 성취에 방해되는 사람이나 일에 공격적으로 대응하는 방식이다(이수식, 1992; Friedman & Rosenman, 1959). 이는 개인이 스트레스를 지각하거나 이에 반응할 때 보이기 쉬운 특징이기도 하다(신승욱, 2008). A유형 행동패턴은 원래 Friedman과 Rosenman(1959)이 관상 동맥 경화성 심장병(CHD: Coronary Heart Disease) 환자의 행동 특징을 분석한 것에서 시작되었고 이를 A유형 성격(Type A personality)이라 불렀다. 선행연구에 의하면, A유형 행동패턴이 강한 사람들은 지나친 성취 추구, 경쟁심, 적개성, 성급함으로 인해 직장상과 가정에서 스트레스를 받기 쉽고(신승욱, 2008) A유형 행동패턴이 강한 어머니는 자녀에게 더 많은 성취를 기대하고 성과를 성급하게 요구하며 이 과정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실망과 좌절을 겪는다고 하였다(민하영·이영미, 2016). 부모의 성격은 행동을 결정하는 인자로 부모 자신뿐 아니라 자녀에 대한 행동, 태도, 감정에 영향을 준다. 그러나 부모의 성격특성인 A유형 행동패턴이 아동의 집행기능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한편 A유형 행동패턴과 비슷한 부모의 심리적 특성 및 양육행동이 자녀의 집행기능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는 상대적으로 많이 이루어져 있다(권희경·김원경, 2020; Gueron-Sela, Camerota, Willoughby et al., 2018; Hughes, Roman, Hart et al., 2013).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부모의 통제적이고 침입적인 양육행동은 자녀의 집행기능과 관련이 있으며 부모의 우울 및 정서적 불안정과 같은 심리적 자원은 자녀의 집행기능 발달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Baker & Kuhn, 2018; Bibok, Carpendale, & Müller, 2009; Valcan, Davis, & Pino-Pasternak, 2018).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부모의 A유형 행동패턴에 대해서 주목하고자 한다. 일반적으로 어머니는 아버지보다 자녀와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자녀도 어머니에게 심리적으로 더 많이 의존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어머니의 A유형 행동패턴이 아동의 집행기능곤란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자아존중감이란 자신의 가치에 대한 평가, 태도, 감정이다(Coopersmith, 1968; Orth & Robins, 2014). 선행연구에 따르면, 아동기 자아존중감은 아동의 사고, 행동 및 정서 전반에 걸쳐 영향을 미치며 개인의 건강, 행복, 성취, 경제적 성공, 사회적 관계와 같은 삶의 다양한 영역에 관여한다고 한다(Brown, 1998). 아동의 자아존중감과 집행기능과의 관

계에 대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자아존중감이 높은 아동은 집행기능 수준이 높았으며 자아존중감이 낮은 아동은 집행기능에 곤란을 겪었다(권희경·김원경, 2020; 권희경·김원경, 2021; 민미희, 2020). 따라서 아동의 집행기능곤란을 설명하는 또 하나의 중요한 요소로 아동의 자아존중감을 살펴보고자 한다.

아동의 행복감은 아동이 일상생활 전반에서 자신의 행동에 대해 느끼는 만족감으로(권기남·성미영, 2010), 행복감을 지속적으로 느끼면 아동의 사고와 행동의 레파토리가 확장되는 효과가 있다(Fredrickson, 2001; Holder, 2012). 또한 정서적 안정감은 정서조절, 학업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아동이 가진 긍정 정서 자원은 집행기능발달에 중요한 요인으로 밝혀졌다(Mayer & Cobb, 2000). 아동이 전반적인 삶에 행복감을 느낄수록 긍정적인 자아개념, 적극적인 문제해결, 친사회적 행동, 높은 학업수행능력을 보였다(김시현, 2022; Huebner, Suldo, Smith et al., 2004). 반면, 아동이 전반적인 삶에 행복감을 느끼지 못하면 학교적응이 어렵고 집행기능에 곤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권희경·김원경, 2020; 이해민·한유진, 2020; 채혜경, 2021). 따라서 아동이 경험하는 긍정적 정서는 아동의 발달과 적응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를 바탕으로(Fredrickson, 2001; Holder, 2012; Mayer & Cobb, 2000) 아동의 집행기능을 설명하는 변인으로 아동의 행복감과 관련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한편, 아동의 행복감은 부모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는 것으로 보고 되고 있다. 선행연구에 의하면, 어머니의 행복감과 긍정적 양육행동은 자녀의 행복감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김주리·김남희, 2014). 그러나 어머니의 성취 지향, 심리적 통제와 같은 심리적 기제는 아동의 부정적 정서를 높였고(김희영·박성연, 2008) 부모의 지나친 성취압력은 아동의 삶의 만족도 및 심리적 안녕감과 같은 정신건강에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이의빈·김진원, 2022; 최경숙, 2007). 어머니의 A형 행동유형이 아동의 행복감에 미치는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지만, 어머니의 A형 행동유형이 우울이나 양육 스트레스를 일으킨다는 연구(민하영·이영미, 2016)와 어머니의 우울, 행복감과 같은 심리적 기제가 자녀의 행복감에 미치는 연구(김주리·김남희, 2014)를 고려하면, 성취동기가 강하고 성취에 방해되면 공격적 성향을 보이는 어머니의 A유형 행동패턴은 아동의 행복감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측되므로 이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또한 아동의 행복감은 개인의 내적 요인인 자아존중감에 의해 영향을 받는 것으로 보고 되고 있다. 자아존중감이란 중요한 타인으로부터 긍정적인 평가를 통해 자신의 능력에 대해 긍정적 믿음을 가지게 되는 것으로(Hewitt, 2002) 자아존중감이 높은 아동은 스스로에 대해 만족감을 가지고 자신감이 넘치며 행복감을 가지게 되나 자아존중감이 낮은 아동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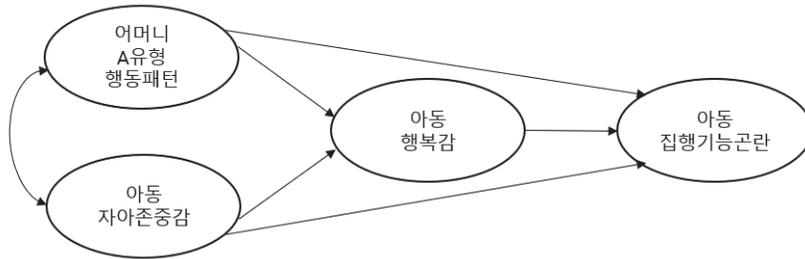
스스로에 대해 만족감이 낮고 자신감이 없으며 행복감이 낮아진다고 하였다(이재경·조혜정, 2012; 정혜숙·김영희, 2014; Baiocco, Verrastro, Fontanesi et al., 2019). Mruk(1995)의 연구에 의하면 자아존중감은 일상생활과 밀접하게 관련이 있으므로, 자아존중감이 높으면 어려운 상황을 만났을 때 이를 극복할 수 있으나 자아존중감이 낮으면 쉽게 좌절한다고 하였다. 특히 학령기 아동의 행복감은 학업성취와 같은 평가적 정보에 의해 영향을 받기 때문에 자아존중감과 관련이 있다고 보고되었다(송영주, 2022). 한편, 학년이 올라갈수록 학업수행 결과와 상관없이 자아존중감은 지속적으로 아동의 행복감에 영향을 주었다(송영주, 2022; Yang, Tian, Huebner et al., 2019). 즉, 아동이 자신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할수록 정서적 안정감을 느끼고 생활 전반에 대한 만족도가 높아진다고 볼 수 있다(송영주, 2022; Diener, Diener, & Diener, 1995). 따라서 아동의 자아존중감은 아동의 행복감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어머니의 A유형 행동패턴과 아동의 자아존중감의 관계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 어머니의 A유형 행동패턴과 아동의 자아존중감에 대한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지만, 어머니의 A유형 행동패턴이 우울이나 양육 스트레스를 일으킨다는 연구(민하영·이영미, 2016)와 어머니의 우울, 행복감과 같은 심리적 기제 및 양육 스트레스가 자녀의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연구(김세루·홍지명·홍혜경, 2010)를 고려하면, 어머니의 A유형 행동패턴은 아동의 자아존중감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측된다.

이상의 논의를 토대로, 본 연구에서는 어머니의 A유형 행동패턴 및 아동의 자아존중감과 행복감, 집행기능곤란 간의 구조적 관계를 검증하고자 한다. 이는 아동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 변인인 어머니의 A유형 행동패턴과 아동의 개인 변인인 자아존중감, 행복감이 어떤 경로로 아동의 집행기능곤란에 영향을 미치는지 밝히고자 한다. 이를 통해 아동의 집행기능곤란을 예방하고 증재할 수 있는 실질적인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제공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이 설정하였고 연구모형은 [그림 1]과 같다.

- 연구문제 1. 어머니의 A유형 행동패턴이 아동의 집행기능곤란에 미치는 직접적 영향과 아동의 행복감의 매개효과는 어떠한가?
- 연구문제 2. 아동의 자아존중감이 아동의 집행기능곤란에 미치는 직접적 영향과 아동의 행복감의 매개효과는 어떠한가?



[그림 1] 연구모형

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육아정책연구소의 한국아동패널(Panel Study on Korean Children) 2020년 13차 자료를 사용하였다. 한국아동패널은 전국에서 층화다단계 표본추출된 2,150명의 신생아를 대상으로 2008년부터 이들이 만 19세가 되는 2027년까지 매해 조사가 진행되는 장기 종단연구이다. 본 연구에서는 어머니의 A유형 행동패턴, 아동의 자아존중감, 전반적 행복감 및 집행기능곤란에 대한 데이터가 모두 존재하는 만 12세 1,217명의 자료를 분석에 사용하였다. 본 연구 대상의 일반적인 특성은 <표 1>과 같다.

<표 1> 연구대상 아동 및 어머니의 일반적 특성

(N=1,217)

변인	구분	빈도(명)	백분율(%)
아동 성별	남자	615	50.5
	여자	602	49.5
어머니 학력	중학교 졸업	4	0.3
	고등학교 졸업	311	25.6
	2~3년제 대학 졸업	359	29.5
	4년제 대학교 졸업	457	37.6
	대학원 졸업	77	6.3
	결측치	9	0.7
변인		평균(표준편차)	
어머니 연령		42.99(SD=3.56)	

2. 연구도구

가. A유형 행동패턴

A유형 행동패턴을 측정하기 위해 공소영(2007), 신승욱(2007) 등이 국내연구에서 활용한 Girdano, Everly와 Dusek(1990)의 Hart Type A Scale을 사용하였으며 해당 아동의 어머니가 응답하였다. A유형 행동패턴은 짧은 시간 내에 많은 것을 얻으려고 하며 시간에 쫓기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정서와 행동의 복합체이다(Friedman & Rosenman, 1959). 성취동기가 강한 편으로 성취에 방해되는 상황에서 참을성이 없어지고 공격적 성향을 보인다(Cooper & McNeil, 1995). 본 척도는 총 10문항으로 '나는 약속시간에 늦는다든지 또는 일이 느리게 진행되는 것을 참지 못 한다', '나는 줄을 서서 기다리는 것을 싫어한다', '나는 무엇이든지 경쟁적으로 하려 한다'와 같이 A형 행동유형의 정도를 측정하도록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1점)부터 '매우 그렇다'(5점)까지의 5점 Likert 척도로 측정되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어머니의 A유형 행동패턴이 강함을 의미한다. 어머니의 A유형 행동유형의 문항 간 내적합치도(Cronbach's α)는 .85로 나타났다.

나. 행복감

아동의 행복감을 측정하기 위해 MCS(2008)의 MCS Child Paper Self Completion Questionnaire을 사용하였으며 해당 아동이 직접 응답하였다. 본 척도는 총 6문항으로 '00이는 학교 공부를 생각하면 어머니?', '00이는 가족에 대해 생각하면 어머니?', '00이는 친구에 대해 생각하면 어머니?'와 같이 일상생활 중 학교공부, 외모, 가족, 친구, 학교, 삶에서 느끼는 전반적 행복감을 측정하도록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전혀 행복하지 않아요'(1점)부터 '매우 행복해요'(4점)까지의 4점 Likert 척도로 측정되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아동의 전반적 행복감이 높음을 의미한다. 아동의 행복감의 문항 간 내적합치도(Cronbach's α)는 .78으로 나타났다.

다. 자아존중감

아동의 자아존중감 측정하기 위해 Rosenberg(1965a)의 자아존중감 척도 10문항을 아동의 연령에 맞게 5문항으로 축소한 MCS(2012)의 MCS Child Paper Self Completion Questionnaire를 사용하였으며 한국아동패널 연구진이 응답자의 문항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일부 문항 문구를 수정하였고 해당 아동이 직접 응답하였다. 본 척도는 총 5문항으로

‘나는 자신에 대해 만족한다’, ‘나에게는 좋은 면이 있다’, ‘나는 무슨 일이든 다른 사람만큼 할 수 있다’와 같이 자신에 대한 만족과 능력을 평가하는 내용으로 자아존중감을 측정하도록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4점)의 4점 Likert 척도로 측정되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응답자인 아동의 자아존중감이 높음을 의미한다. 아동 자아존중감의 문항 간 내적합치도(Cronbach's α)는 .90으로 나타났다.

라. 집행기능곤란

아동의 집행기능곤란을 측정하기 위해 송현주(2014)가 초등학교 고학년을 대상으로 개발한 간편형 자기보고식 집행기능곤란 척도를 사용하였으며 해당 아동이 직접 응답하였다. 본 척도는 장애를 가지지 않은 일반 집단을 대상으로 하는 일차 선별 평가도구로 개발되었으며(송현주, 2014) 총 40문항이고 4가지 하위요인인 계획-조직화곤란(11문항, 예: 차근차근 순서대로 해야 되는 일을 하는 것을 어려워한다), 행동·통제곤란(11문항, 예: 앉아서 집중해야 할 때 자리에 잘 앉아 있지 못한다), 정서·통제곤란(8문항, 예: 사소한 일에도 화를 쉽게 폭발한다), 부주의(10문항, 예: 내 물건을 챙기지 못해 여기저기 흘리고 다닌다)로 구성되었다. 각 문항은 전혀 아니다(1점), 가끔 그렇다(2점), 자주 그렇다(3점)의 3점 Likert 척도로 측정되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아동이 집행기능 수행에 어려움이 있음을 의미한다. 아동 집행기능곤란의 문항 간 내적합치도(Cronbach's α)는 계획-조직화곤란 .87, 행동·통제곤란 .83, 정서·통제곤란 .88, 부주의 .87로 나타났다.

3. 자료분석

본 연구에서는 SPSS 23.0 프로그램과 MPLUS 8.3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첫째, 연구대상의 사회인구학적 특성을 알기 위해 빈도, 백분율, 평균, 및 표준편차를 산출하였고, 연구도구의 내적 합치도를 확인하기 위해 Cronbach's α 계수를 산출하였다. 둘째, 주요 변인들의 정규성을 확인하기 위해 기술통계를 실시하여 평균, 표준편차, 왜도 및 첨도를 산출하였고, 측정 변인 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보기 위해 Pearson의 적률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셋째, 전체 변인 간의 구조 및 경로를 확인하기 위하여 구조방정식 모형을 실시하였다. 또한 간접효과가 유의한 지 통계적으로 검증하기 위하여 부트스트래핑 테스트(Bootstrapping test)를 실시하였다.

III. 연구결과

1. 주요 변인의 기술통계 및 상관분석

연구모형 검증에 앞서, 주요 변인들의 평균, 표준편차, 왜도 및 첨도를 확인하였고 변인들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하여 그 결과를 <표 2>에 제시하였다.

<표 2> 기술통계 및 상관분석 결과

(N=1,217)

변인	1	2	3	4
1 어머니 A유형 행동패턴	-			
2 아동 자아존중감	-.09**	-		
3 아동 행복감	-.12***	.64***	-	
4 아동 집행기능곤란	.12***	-.34***	-.41***	-
M	2.51	3.33	2.97	1.50
SD	.62	.56	.48	.33
왜도	-.26	-.68	-.39	.69
첨도	.11	.54	.62	.20

* $p < .05$, ** $p < .01$, *** $p < .001$

<표 2>에 나타난 주요 변인들의 평균 및 표준편차를 살펴보면, 어머니의 A유형 행동패턴은 2.51($SD = .62$), 아동의 자아존중감은 3.33($SD = .56$), 아동의 행복감은 2.97($SD = .48$), 아동의 집행기능곤란은 1.50($SD = .33$)이었다. 어머니의 A유형 행동패턴과 아동의 행복감, 아동의 자아존중감 평균값은 모두 중앙값보다 높은 점수를 보였고 아동의 집행기능곤란 평균값은 중앙값이었다. 모든 변인들의 왜도 절대값은 2 미만, 첨도 절대값은 4 미만인 것으로 나타나 본 자료가 정규분포임을 확인하였다(Hong, Malik, & Lee, 2003). 연구모형의 통계 추정방법은 최대우도추정법을 사용하였다.

아동의 집행기능곤란과 제반 변인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어머니의 A유형 행동패턴은 아동의 자아존중감과 부적 상관관계($r = -.09$, $p < .01$), 아동의 행복감과 부적 상관관계($r = -.12$, $p < .001$), 아동의 집행기능곤란과 정적 상관관계($r = .12$, $p < .001$)를 보였다. 이는 어머니의 A유형 행동패턴이 높을수록 아동의 행복감과 자아존중감은 낮고

아동의 집행기능은 곤란을 겪음을 의미한다. 또한 아동의 자아존중감은 아동의 행복감과 정적 상관관계($r = .64, p < .001$), 아동의 집행기능곤란과 부적 상관관계($r = -.34, p < .001$)를 보였다. 이는 아동의 자아존중감이 높을수록 아동의 행복감은 높아지고 집행기능은 곤란을 겪지 않음을 의미한다.

2. 어머니의 A유형 행동패턴 및 아동의 자아존중감과 행복감, 집행기능곤란 간의 구조모형 분석

가. 측정모형 분석

구조모형 분석에 앞서, 본 연구의 측정변인들이 잠재변인을 잘 설명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어머니의 A유형 행동패턴, 아동의 자아존중감, 행복감은 문항 묶음 방식을 활용하여 측정변인을 상정하였다(Bentler & Chou, 1987). 문항 묶음의 방식은 부분 문항 접근(subset item approach)방식 중, 측정변인의 요인 적재치의 상, 하위 값을 묶어주는 방법을 사용하였다(Hall, Snell, Foust, 1999; Matsunaga, 2008). 그 결과, 측정모형의 적합도 지수는 <표 3>에 제시하였다. 본 연구의 측정모형 적합도는 TLI와 CFI가 .90 이상(홍세희, 2000), RMSEA가 .08 이하(Browne & Cudeck, 1992)일때 양호하다고 간주할 때, 모형 적합성이 입증되었다.

<표 3> 측정 모형의 적합도

구분	χ^2	df	p	TLI	CFI	RMSEA
측정 모형	187.78	59	0.00	.98	.98	.0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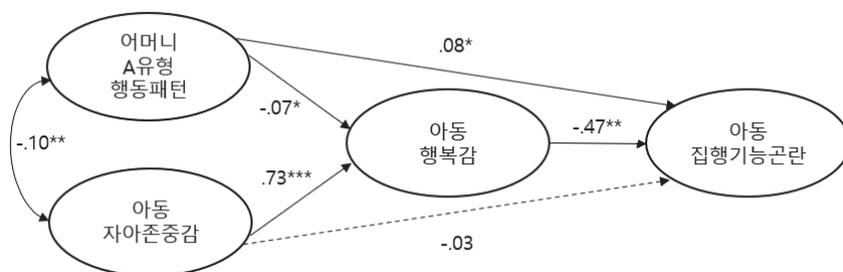
잠재변인에서 측정변인으로서의 요인부하량은 <표 4>에 제시하였고 요인부하량이 .50 이상이어야 한다는 기준을 충족하였다(Hair, Black, Babin et al., 2006). Critical Ratio(t 값)은 모두 $p < .001$ 수준에서 유의하여 측정변인들이 잠재변인들을 적절히 설명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4〉 측정 모형의 요인 부하량

잠재변수	측정변수	<i>B</i>	β	S.E.	C.R.	ρ
어머니 A유형 행동패턴	2,3,4,7	1.00	.78	.02	43.53	.00
	5,6,10	1.00	.08	.02	44.96	.00
	1,8,9	1.03	.75	.02	35.91	.00
아동 자아존중감	3,5	1.00	.91	.01	80.20	.00
	1,4	.92	.87	.01	74.19	.00
	2	1.05	.83	.02	54.84	.00
아동 행복감	1,6	1.00	.79	.02	44.62	.00
	3,4	.69	.61	.02	26.14	.00
	2,5	1.03	.80	.02	46.92	.00
	계획-조직화곤란	1.00	.81	.01	58.65	.00
아동 집행기능곤란	행동·통제곤란	.80	.83	.01	63.07	.00
	정서·통제곤란	.92	.68	.02	36.09	.00
	부주의	.88	.68	.02	37.48	.00

나. 구조모형 분석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 측정모형의 타당도가 검증되어 구조방정식 모형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어머니의 A유형 행동패턴, 아동의 자아존중감, 아동의 행복감이 아동의 집행기능곤란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경로와 어머니의 A유형 행동패턴과 아동의 자아존중감이 아동의 행복감을 매개로 아동의 집행기능곤란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경로를 확인하기 위해 구조모형을 설정하고 분석하였다. 구체적인 경로와 표준화 계수는 [그림 2]와 같다.



[그림 2] 구조모형의 경로와 표준화 계수

〈표 5〉 구조모형의 경로계수

경로		<i>B</i>	β	S.E.	C.R.
어머니 A유형 행동패턴	→ 아동 행복감	-.06	-.07*	.03	-2.43
	→ 아동 집행기능곤란	.05	.08*	.03	2.50
	↔ 아동 자아존중감	-.03	-.10**	.03	-3.15
아동 자아존중감	→ 아동 행복감	.63	.73***	.02	37.47
	→ 아동 집행기능곤란	-.02	-.03	.05	-.66
아동 행복감	→ 아동 집행기능곤란	-.33	-.47***	.05	-8.88

* $p < .05$, ** $p < .01$, *** $p < .001$

〈표 5〉에 따르면, 독립변인인 어머니의 A유형 행동패턴은 종속변인인 아동의 집행기능 곤란에 직접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beta = .08$, $p < .05$). 즉 어머니의 A유형 행동패턴은 아동의 집행기능곤란에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다음으로 독립변인인 어머니의 A유형 행동패턴이 매개변인인 아동의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beta = -.07$, $p < .05$)은 통계적으로 유의했고 매개변인이 종속변인으로 가는 경로도 확인한 결과, 아동의 행복감이 집행기능 곤란으로 가는 경로($\beta = -.47$, $p < .001$)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또 다른 독립변인인 아동의 자아존중감은 종속변인인 아동의 집행기능곤란에 직접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beta = -.03$, ns). 즉 아동의 자아존중감은 아동의 집행기능곤란에 부적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다음으로 독립변인인 아동의 자아존중감이 매개변인인 아동의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beta = .73$, $p < .001$)은 통계적으로 유의했고 매개변인이 종속변인으로 가는 경로를 확인한 결과, 아동의 행복감이 집행기능곤란으로 가는 경로($\beta = -.47$, $p < .001$)도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다음으로 어머니의 A유형 행동패턴과 아동의 자아존중감이 아동의 집행기능곤란에 미치는 영향에서 아동의 행복감의 매개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인지 검증을 위해 신뢰구간을 95%로 설정하고 5,000회 부트스트래핑 테스트를 하여 간접효과를 확인하였다. 그 결과는 〈표 6〉과 같다.

〈표 6〉 구조모형의 매개효과

경로	Direct Effect	Indirect Effect	95% CI		Total Effect
			Boot/LLCI	Boot/ULCI	
어머니 A유형 행동패턴 → 아동 행복감 → 아동 집행기능곤란	.048*	.019*	-.004	.042	.067**
아동 자아존중감 → 아동 행복감 → 아동 집행기능곤란	-.021	-.211***	-.284	-.139	-.232***

* $p < .05$, ** $p < .01$, *** $p < .001$

어머니의 A유형 행동패턴과 아동의 집행기능곤란 간의 관계에서 아동의 행복감의 간접 효과는 유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beta = .019$, 95% CI = $-.004 \sim .042$). 즉, 어머니의 A유형 행동패턴과 아동의 집행기능곤란 간의 관계에서 아동의 행복감의 개별매개 효과는 나타나지 않았다. 한편, 아동의 자아존중감과 아동의 집행기능 곤란 간의 관계에서 아동의 행복감의 간접효과는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beta = -.211$, 95% CI = $-.284 \sim -.139$). 이는 아동의 자아존중감과 아동의 집행기능곤란 간의 관계에서 아동의 행복감의 개별매개 효과가 통계적으로 검증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I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의 주요 결과들과 함의점을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어머니의 A유형 행동패턴은 아동의 집행기능곤란에 직접적 영향을 미쳤다. 즉 어머니가 경쟁적이고 짧은 시간에 높은 성취를 얻으려 하며 성취에 방해되는 상황에서는 공격적 성향을 보이면 아동은 집행기능에 곤란을 겪게 됨을 의미한다. 이는 어머니의 성격, 심리적 기제, 양육 행동이 자녀의 발달과 집행기능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권희경·김원경, 2020; 이경희·김영희·신성일, 2012; Valcan, Davis, & Pino-Pasternak, 2018)와 어머니의 통제적이고 권위주의적 양육 행동이 아동의 집행기능곤란에 영향을 준다는 연구(민미희, 2018; 박정현·이경남, 2021)와 흐름을 같이 한다. 이 결과는 어머니 변인과 아동의 집행기능 간의 관계에서 어머니의 기질, 우울, 양육 행동뿐만 아니라 성취동기가 강하고 성취에 방해되는 상황에서는 참을성이 없어지고 공격적 성향을 보이는 A유형 행동패턴도 아동의 집행기능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요인임을 확인 시켜주었다. 또한 양육자인 어머니의 성격이 아동기 전기뿐만

청소년기를 앞둔 초등학교 6학년의 집행기능의 발달에도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따라서 아동의 집행기능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어머니의 A유형 행동패턴에 주목할 필요가 있으며 이런 특성을 보이는 어머니를 대상으로 한 상담 개입이 고려되어야 한다.

둘째, 아동의 자아존중감은 아동의 행복감을 매개로 아동의 집행기능곤란에 간접적 영향을 미쳤다. 아동의 자아존중감이 낮으면 행복감이 낮아지고 이로 인해 집행기능에 곤란을 일으킨다. 이는 아동의 자아존중감이 아동의 행복감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이재경·조혜정, 2012; 정혜숙·김영희, 2014; Baiocco, Verrastro, Fontanesi et al., 2019)와 아동의 행복감이 아동의 집행기능 곤란에 영향을 준다는 연구와 일맥상통한다(권희경·김원경, 2020). 이 결과는 아동의 자아존중감이 아동의 정서를 통해 집행기능곤란에 영향을 미침을 의미하며 아동의 심리적 요인인 자아존중감과 행복감이 아동의 집행기능곤란을 증재할 수 있는 요인임을 시사한다. 자아존중감이란 자신을 바람직하고 가치 있는 존재로 여기는 것으로(Rosenberg, 1965b) 인간의 기본욕구라고 할 수 있다(Maslow, 1943). 자아존중감이 높으면 자신감과 유능감을 느끼고, 자아존중감이 낮으면 열등감과 무력감을 느끼게 된다(Erikson, 1950; Maslow, 1943). 또한 자아존중감은 아동의 행동 발달, 사회적 적응, 긍정적 성격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하므로(Rogers, 1951) 긍정적 정서와 정서적 안정감은 긍정적 행동으로도 연결되어 질 수 있다. 아동이 자신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자신의 능력에 대해 확신을 가지면 행복감이 높아지고 정서적 안정감을 느끼는 것이다(송영주, 2022; Compton, 2005; Diener, Diener, & Diener, 1995). 따라서 집행기능곤란을 보이는 아동을 증재할 때, 아동의 자아존중감을 높여주는 방안과 안정적인 정서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개입이 필요하다.

이와 같은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도출할 수 있는 본 연구의 의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어머니의 A유형 행동패턴이 아동의 집행기능곤란에 미치는 직접적 영향과 아동의 자아존중감이 아동의 행복감을 통해 아동의 집행기능곤란에 미치는 간접적 영향을 검증하였다. 이를 통해 아동의 집행기능곤란에 미치는 각 변인의 영향력뿐 아니라 그 발달 경로를 살펴보았다는 것에 의의가 있다. 둘째, 본 연구를 통해 아동의 집행기능과 높은 연관을 가진 것으로 알려진 행복감의 선행요인으로서 심리적 특성인 자아존중감의 역할을 발견하였고 이것이 집행기능과 연결되는 과정을 규명하였다. 따라서 아동의 집행기능곤란을 증재하기 위해서 아동의 정서적 안정감과 긍정적 정서가 중요한 매개역할을 하며 이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 변인으로 자아존중감이 있음을 밝혀내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본 연구의 제한점과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만 12세 아

동과 그 어머니에 대한 자료를 동일한 시점에서 수집한 횡단적 연구 방법을 적용하였기 때문에 어머니의 A유형 행동유형과 아동의 자아존중감, 아동의 행복감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 아동의 집행기능곤란에 영향을 주는 종단적 경로를 파악할 수 없다는 점에서 제한점을 가진다. 집행기능은 유아기부터 청소년기까지 연속적으로 발달하기 때문에, 종단적 연구 방법으로 시간의 흐름에 따른 변수 간의 상호인과적 관계를 알아보는 추후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둘째, 본 연구는 만 12세 아동의 집행기능 발달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환경 변인으로 어머니의 A유형 행동패턴, 개인 변인으로 아동의 자아존중감, 행복감을 설정하였으나 학령기는 어머니 외에 다양한 대상과 환경에 의해서 영향을 받기 때문에 추후 연구에서는 아버지, 또래, 학교 환경 등과 같은 다양한 환경 변인에 대한 확장연구가 필요하다.

V. 정책적 제언 및 시사점

본 연구결과를 토대로 아동의 집행기능 곤란을 예방하고 중재하기 위한 정책적 제언 및 시사점을 제안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집행기능곤란을 보이는 아동을 조기에 선별하여 지원하는 것이 중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초등학교 6학년 아동 1,217명을 대상으로 집행기능곤란을 조사하였고 집행기능곤란 평균이 '가끔 그렇다'(2점)이상일 경우를 집행기능에 곤란을 겪는다고 간주하였을 때, 전체 아동의 8.4%가 집행기능에 곤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는 연구에 참여한 초등학교 6학년 아동 중 적지 않은 비율이 집행기능에 곤란을 겪고 있음을 의미한다. 아동의 집행기능곤란은 주의집중, 정서인식, 정서조절, 행동통제, 계획수립 등에 문제를 일으키고 학교적응, 학업수행 등 전반적인 생활에 어려움을 겪게 한다(김영희·이정미, 2002; 박정현·이경님, 2021; 송현주, 2014; 이동형, 2009; Riggs, Blair, & Greenberg, 2003). 따라서 집행기능에 곤란을 보이는 아동을 조기에 선별하고 지원하여 학습부진, 사회성, 정서·행동 문제와 같이 집행기능곤란이 아동의 일상생활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해야 한다. 교육부에서는 2012년부터 초등학교 1학년, 4학년,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 특수학교 아동을 대상으로 3년에 한번씩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돕기 위한 정서·행동 특성 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이는 아동이 가지고 있는 문제 진단이 목적이 아니라 정서, 인지, 행동특성을 알아보는 선별검사이며 아동의 우울, 자살, 불안, ADHD 등 정서·행동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고 조기에 발견하여 치료지원을 하기 위해 시행하고 있다(교육부, 2022). 검사 개선 방안으로 현재 이 검사는 만 3년에 한 번씩 실시하고 있는데 아동의 정서·행동문제를 조기

에 선별하고 빠른 지원을 하기 위해서는 매년 검사를 실시하는 방안도 고려될 필요가 있다. 또한 검사의 객관성을 높이기 위해서 학부모가 검사 문항에 응답할 때 정확하게 응답할 수 있도록 학부모 대상으로 검사목적과 취지 및 지원방안에 대한 안내가 필요하다. 학부모뿐 아니라 교사도 1차 선별검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고려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교육부뿐만 아니라 여성가족부와 보건복지부도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돕기 위해서 검사 결과에 따른 전문적이고 적극적인 치료지원을 추진한다면 검사의 효과성은 더욱 높아질 것으로 사료된다.

둘째, 아동의 집행기능곤란을 예방하고 증재하기 위해서 아동에게 중요한 발달 환경인 어머니의 A유형 행동패턴과 같은 부정적 행동패턴에 대한 상담 접근이 요구된다. 현재 각 지역에서는 건강가정지원센터, 정신건강복지센터 등을 통해 무상으로 다양한 프로그램이 제공되고 있으나 교육 및 상담 기회에서 여전히 소외된 학부모들도 존재하므로 학교 차원에서 적극적 홍보가 필요하다. 또한 A유형 행동패턴이 강한 어머니는 자녀에게 더 많은 성취를 기대하고 성과를 성급하게 요구하여 상대적으로 높은 실망과 좌절을 겪는다고 하였다(민하영·이영미, 2016). 어머니의 A유형 행동패턴이 아동의 집행기능곤란뿐만 아니라 양육스트레스를 높인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부모가 자신의 부정적 행동패턴을 탐색하고 개선하여 양육 스트레스도 관리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기존의 부모 프로그램은 대부분 유아 부모를 대상으로 개발되고 운영되었으므로 학령기 부모를 대상으로 하는 상담프로그램 및 양육스트레스 관리 프로그램이 개발되고 운영될 필요가 있다.

셋째, 아동의 자아존중감과 행복감이 아동의 집행기능에 중요한 요인이 밝혀졌으므로 가정, 학교, 지역사회는 아동의 자아존중감 향상에 따른 아동의 행복감을 증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이는 아동의 집행기능곤란을 예방하고 증재하는 적극적인 개입방안으로 아동의 개인적이고 심리적 요인에 대한 역할이 규명된 것이다. 자아존중감이 높은 아동은 스스로에 대해 만족감을 느끼고 자신감이 넘치며 행복감을 느끼나 자아존중감이 낮은 아동은 스스로에 대해 만족감이 낮고 자신감이 없으며 행복감이 낮다고 하였다(연은모·최효식, 2019; 이재경·조혜정, 2012; 정혜숙·김영희, 2014; Baiocco, Verrastro, Fontanesi et al., 2019). 아동의 자아존중감은 사회적 관계를 통하여 형성될 수 있기에 교실 분위기가 지지적이고, 포괄적 긍정적 애착을 보일수록 자아존중감이 높아진다는 연구가 있다(김지영·정은화·이강이, 2020). 이를 고려할 시, 아동의 자아존중감을 높이기 위해서 아동이 가정, 학교, 지역사회에서 만나는 사람으로부터 존중받고 지지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신체적, 정신적 학대, 집단따돌림, 비속어 노출 등은 아동의 자아존중감을 낮추고 정서를 불안정하게 하는 대표적인 사건이므로 가정과 학교에서 학대나 집단따돌림

이 일어나지 않도록 정부 차원에서 아동을 보호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들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공소영(2007). 치과위생사의 성격유형(A형/B형)과 직무스트레스의 관계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경희대학교 행정대학원.
- 교육부(2022). 2022 학생 정서 행동 특성 검사 및 관리 매뉴얼.
- 권기남·성미영(2010). 유아의 행복감이 행동문제 및 대인 간 문제해결 전략에 미치는 영향. 한국생활과학회지, 19(2), 257-270.
- 권희경·김원경(2020). 아동의 심리적 요인, 부모의 양육 행동, 부모의 심리적 요인과 아동 집행기능의 관계에 대한 연구. 유아교육학논집, 24(1), 143-162. <https://doi.org/10.32349/ECERR.2020.2.24.1.143>
- 권희경·김원경(2021). 아동 성별에 따른 실행기능 관련 변인 연구. 유아교육연구, 41(4), 323-343.
- 김세루·홍지명·홍혜경(2010). 어머니의 양육행동 및 양육스트레스와 유아의 자아존중감 간의 관계. 어린이미디어연구, 9(2), 113-132.
- 김시현(2022). 행복한 아이가 학업성취도가 높은가?: 초등학생의 행복감과 학업수행능력 간 자기회귀교차지연 효과검증. 교육문화연구, 28(1), 343-362.
- 김영희·이건웅·이승철(2012). DISC: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우리 행동의 4가지 특성. 서울: 학이시습.
- 김영희·이정미(2002). 부모 간의 갈등과 아동. 청소년의 자아존중감 및 부적응. 대한가정학회 학술대회, 84-84.
- 김주리·김남희(2014). 어머니의 행복감 및 양육행동과 유아의 행복감 간 관계. 생애학회지, 4(1), 19-32.
- 김지영·정은화·이강이(2020). 아동의 자아존중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탐색: 빅데이터분석을 중심으로. 아동학회지, 41(6), 111-123.
- 김희영·박성연(2008). 어머니의 완벽주의와 심리적 통제가 남, 여 아동의 완벽주의 및 우울에 미치는 영향: 경로분석 모형.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21(3), 115-131.
- 노지운·신나나(2020). 부부갈등이 아동의 실행기능, 정서조절 및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 어머니의 양육행동과 아동의 수면의 매개적 역할. 아동학회지, 41(6), 51-66.
- 문화일보(2022. 8. 23). 조희연 서울 모든 학교, 2학기 '정상등교'.

- 민미희(2018). 어머니의 온정적 양육 및 통제적 양육과 아동의 집행기능 곤란이 초등학교 1학년 아동의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 *유아교육·보육복지연구*, 22(3), 91-121.
- 민미희(2020). 어머니의 권위적 양육행동, 아동의 자아존중감, 아동의 집행기능 곤란 및 아동의 미디어 기기 중독 간의 구조적 관계. *열린부모교육연구*, 12(3), 149-166. <https://doi.org/10.36431/JPE.12.3.7>
- 민하영·이영미(2016). 학령기 자녀를 둔 어머니의 A유형 행동패턴과 우울감 관계에서 양육스트레스의 매개효과. *한국생활과학회지*, 25(3), 307-315.
- 박정현·이경남(2021). 어머니의 권위주의적 양육행동과 아동의 집행기능 곤란 및 학업수행능력이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 *열린부모교육연구*, 13(2), 93-116. <https://doi.org/10.36431/JPE.13.2.5>
- 송영주(2022). 초등학교 저학년 아동의 행복감 및 행복감 경로 관계: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 및 성별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아동학회지*, 43(4), 511-524.
- 송현주(2014). 간편형 자기보고식 아동 청소년 집행기능 곤란 질문지 타당화. *한국심리학회: 임상*, 33(1), 121-137.
- 신승욱(2008). A/B형 행동 유형에 따른 초등학교 교사의 직무 스트레스와 정신건강과의 관계 분석. 석사학위논문. *춘천교육대학교 대학원*.
- 연은모·최효식(2019). 초등학생이 지각한 학교환경, 자아존중감, 행복감 간 관계: 집행기능 곤란, 성별의 조절효과.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19(7), 121-140.
- 이경혜(2018). 빈곤, 자율적 학습행동역량, 스마트폰 의존이 아동청소년의 정서행동문제 형성에 미치는 영향: 초등학생 및 중고등학생의 비교분석. *아동교육*, 27(1), 5-21.
- 이경희·김영희·신성일(2012). 어머니의 성격특성과 결혼만족도가 유아의 자기조절력 및 사회적 유능감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족복지학*, 17(1), 125-152.
- 이동형(2009). 집행기능의 이해: 학교심리학적 적용을 위한 개관. *한국심리학회지: 학교*, 6(2), 123-147.
- 이수식(1992). 성격 Type A와 B의 성취열에 관한 연구. *경성대학교 논문집*, 13(1), 203-210.
- 이의빈·김진원(2022). 부모의 성취압력이 아동의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학업 스트레스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청소년문화포럼*, 129-158.
- 이재경·조혜정(2012). 학령기 아동의 행복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종단 연구. *한국 아동복지학*, (40), 41-71.
- 이혜민·한유진(2020). 어머니의 행복감이 아동의 집행기능 곤란에 미치는 영향에서 아동의 행복감과 미디어기기 중독의 순차적 이중매개효과. *아동학회지*, 41(5), 85-98.
- 임효진(2022). 그것이 매개하는 학교환경과 초등학생 집행기능의 관계에서 학업 스트레스의 조절효과. *한국초등교육*, 33(4), 249-264.

- 정은화·이현아·이지영·이강이(2019). 초등학교 3학년의 미디어기기 이용과 집행기능 곤란과의 관계: 의사소통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Family and Environment Research*, 57(4), 523-534.
- 정혜숙·김영희(2014). 아동이 지각한 행복 결정요인: 심리특성, 사회활동, 관계적 요인을 중심으로. *청소년학연구*, 21(7), 89-118.
- 채혜경(2021). 아동의 행복감, 집행기능곤란과 학교적응 간의 중단적 관계. *인문사회* 21, 12(5), 1617-1626. <https://doi.org/10.22143/HSS21.12.5.114>
- 최경숙(2007). 부모의 학업성취압력과 아동의 학업성취목표가 아동의 스트레스와 심리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 박사학위논문. 한양대학교 대학원.
- 하문선(2021). 아동의 집행기능곤란 잠재계층과 정서행동문제 간 관계 및 영향변인 검증: 성장혼합모형의 적용. *아시아교육연구*, 22(4), 801-825. <https://doi.org/10.15753/aje.2021.12.22.4.801>
- 황혜정(1994). 가족 구조가 아동의 정서 행동문제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일 연구. *아동학회지*, 15(2), 195-211.
- 홍세희(2000). 구조방정식모형의 적합도 지수 선정기준과 그 근거. *한국심리학회:임상*, 19(1), 161-177.
- Anderson, V. A., Anderson, P., Northam, E., Jacobs, R., & Catroppa, C. (2001). Development of executive functions through late childhood and adolescence in an Australian sample. *Developmental Neuropsychology*, 20(1), 385-406. https://doi.org/10.1207/S15326942DN2001_5
- Baiocco, R., Verrastro, V., Fontanesi, L., Ferrara, M. P., & Pistella, J. (2019). The contributions of self-esteem, loneliness, and friendship to children's happiness: The roles of gender and age. *Child Indicators Research*, 12(4), 1413-1433.
- Baker, C., & Kuhn, L. (2018). Mediated pathways from maternal depression and early parenting to children's executive function and externalizing behaviour problems. *Infant and Child Development*, 27(1), e2052. <https://doi.org/10.1002/icd.2052>
- Bentler, P. M., & Chou, C. P. (1987). Practical issues in structural modeling. *Social Methods & Research*, 16, 78-117. <https://doi.org/10.1177/0049124187016001004>
- Bibok, M. B., Carpendale, J. I., & Müller, U. (2009). Parental scaffolding and the development of executive function. *New Directions for Child and Adolescent Development*, 2009(123), 17-34. <https://doi.org/10.1002/cd.233>

- Blakemore, S. J., & Choudhury, S. (2006). Development of the adolescent brain: implications for executive function and social cognition. *Journal of Child Psychology and Psychiatry*, 47(3-4), 296-312. <https://doi.org/10.1111/j.1469-7610.2006.01611.x>
- Brown, J. D. (1998). *The Self*. New York: Psychology Press. <https://doi.org/10.4324/9780203837641>
- Browne, M. W., & Cudeck, R. (1993). Alternative ways of assessing model fit. In Bollen, K.A. & Long, J.S.(Eds.), *Testing Structural Equation Models*. Newbury Park, CA: Sage.
- Butterfield, E. C., Hacker, D. J., & Albertson, L. R. (1996). Environmental, cognitive, and metacognitive influences on text revision: Assessing the evidence. *Educational Psychology Review*, 8(3), 239-297.
- Compton, W. C. (2005). *Introduction to positive psychology*. Thomson Wadsworth.
- Cooper, H., Okamura, L., & McNeil, P. (1995). Situation and personality correlates of psychological well-being: Social activity and personal control. *Journal of Research in Personality*, 29(4), 395-417. <https://doi.org/10.1006/jrpe.1995.1023>
- Coopersmith, S. (1968). Studies in self-esteem. *Scientific American*, 218(2), 96-107.
- Diamond, A. & Lee, K. (2011). Interventions shown to aid executive function development in children 4 to 12 years old. *Science*, 333(6045), 959-964. <https://doi.org/10.1126/science.1204529>
- Diener, E., Diener, M., & Diener, C. (1995). Factors predicting the subjective well-being of nation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9, 851-864. <https://doi.org/10.1037/0022-3514.69.5.851>
- Erikson, E. H. (1950). Growth and crises of the "healthy personality." In M. J. E. Senn (Ed.), *Symposium on the healthy personality* (pp. 91-146). Josiah Macy, Jr. Foundation.
- Fredrickson, B. L. (2001). The role of positive emotions in positive psychology: The broaden-and-build theory of positive emotions. *American Psychologist*, 56(3), 218-226. <https://doi.org/10.1037/0003-066X.56.3.218>
- Friedman, M., & Rosenman, R. H. (1959). Association of specific overt behavior pattern with blood and cardiovascular findings: Blood cholesterol level, blood clotting time, incidence of arcus senilis, and clinical coronary artery disease. *Journal of The American Medical Association*, 169(12), 1286-1296. <https://doi.org/10.1001/jama.1959.03000290012005>

- Gioia, G. A., Isquith, P. K., & Guy, S. C. (2001). Assessment of executive functions in children with neurological impairment. In R. J. Simeonsson & S. L. Rosenthal(Eds.), *Psychological and developmental assessment: Children with disabilities and chronic conditions*. The Guilford Press.
- Girdano, D. A., Everly, G. S. & Dusek, D. E. (1990). *Controlling stress and tension: A holistic approach*, New Jersey: Prentice-Hall Inc.
- Gueron-Sela, N., Camerota, M., Willoughby, M. T., Vernon-Feagans, L., & Cox, M. J. (2018). Maternal depressive symptoms, mother-child interactions, and children's executive function. *Developmental Psychology*, *54*(1), 71-82. <https://doi.org/10.1037/dev0000389>
- Hair, J., Black, W., Babin, B., Anderson, R., & Tatham, R. (2006). *Multivariate Data Analysis* (6th Edition), Pearson Prentice Hall, Upper Saddle River.
- Hall, R. J., Snell, A. F., & Foust, M. S. (1999). Item parceling strategies in SEM: Investigating the subtle effects of unmodeled secondary constructs. *Organizational Research Methods*, *2*(3), 233-256. <https://doi.org/10.1177/109442819923002>
- Hewitt, J. P. (2002). The social construction of self-esteem. In C. R. Snyder & S. J. Lopez (Eds.), *Handbook of positive psychology* (pp. 135-147).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 Hong, S., Malik, M. L., & Lee, M. K. (2003). Testing configural, metric, scalar, and latent mean invariance across genders in sociotropy and autonomy using a non-western sample. *Educational and psychological measurement*, *63*(4), 636-654. <https://doi.org/10.1177/0013164403251332>
- Holder, M. D. (2012). *Happiness in Children. Measurement, Correlates and Enhancement of Positive Subjective Well-Being*. New York: Springer.
- Huebner, E. S., Suldo, S. M., Smith, L. C., & McKnight, C. G. (2004). Life satisfaction in children and youth: Empirical foundations and implications for school psychologists. *Psychology in the Schools*, *41*(1), 81-93.
- Hughes, C., Roman, G., Hart, M. J., & Ensor, R. (2013). Does maternal depression predict young children's executive function? A 4-year longitudinal study. *Journal of Child Psychology and Psychiatry, and Allied Disciplines*, *54*(2), 169-177. <https://doi.org/10.1111/jcpp.12014>
- Korkman, M., Kemp, S. L., Kirk, U. (2001). Effects of age on neurocognitive measures of children ages 5 to 12: A cross-sectional study on 800 children from the United States. *Developmental Neuropsychology*, *20*(1),

- 331-354. https://doi.org/10.1207/S15326942DN2001_2
- Maslow, A. H. (1943). A theory of human motivation. *Psychological Review*, 50(4), 370. <https://doi.org/10.1037/h0054346>
- Matsunaga, M. (2008). Item parceling in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A primer. *Communication Methods and Measures*, 2, 260-293. <https://doi.org/10.1080/19312450802458935>
- Mayer, J. D., & Cobb, C. D. (2000). Educational policy on emotional intelligence: Does it make sense? *Educational Psychology Review*, 12, 163-183.
- MCS (2008). MCS Child Paper Self Completion Questionnaire.
- MCS (2012). MCS Child Paper Self Completion Questionnaire.
- Micco, J. M., Henin, A., Biederman, J., Rosenbaum, J. F., Petty, C., Rindlaub, L. A., Murphy, M. & Hirshfeld-Becker, D. R. (2009). Executive functioning in offspring at risk for depression and anxiety. *Depression and Anxiety*, 26(9), 780-790. <https://doi.org/10.1002/da.20573>
- Mruk, C. (1995). *Self-esteem: Research, theory, and practice*. New York: Springer Publishing Company.
- Orth, U., & Robins, R. W. (2014). The development of self-esteem. *Current Directions in Psychological Science*, 23(5), 381-387. <https://doi.org/10.1177/0963721414547414>
- Riggs, N. R., Blair, C. B., & Greenberg, M. T. (2003). Current and 2-year longitudinal relations between executive function and the behavior of 1st and 2nd grade children. *Child Neuropsychology*, 9, 267-276. <https://doi.org/10.1076/chin.9.4.267.23513>
- Rogers, C. R. (1951). Perceptual reorganization in client-centered therapy. In R. R. Blake & G. V. Ramsey (Eds.), *Perception: An approach to personality* (pp.307-327). Ronald Press Company. <https://doi.org/10.1037/11505-011>
- Rosenberg, M. (1965a). Rosenberg self-esteem scale (RSE). *Acceptance and commitment therapy. Measures package*, 61(52), 18.
- Rosenberg, M. (1965b). *Society and adolescent self-image*. Princeton, NJ: Princeton University Press.
- Ursache, A., Blair, C., Stifter, C., & Voegtline, K. (2013). Emotional reactivity and regulation in infancy interact to predict executive functioning in early childhood. *Developmental Psychology*, 49(1), 127. <https://psycnet.apa.org/doi/10.1037/a0027728>

- Valcan, D. S., Davis, H., & Pino-Pasternak, D. (2018). Parental behaviours predicting early childhood executive functions: A meta-analysis. *Educational Psychology Review, 30*, 607-649.
- Welsh, M. C., Pennington, B. F., & Groisser, D. B. (1991). A normative-developmental study of executive function: A window on prefrontal function in children. *Developmental Neuropsychology, 7*(2), 131-149. <https://doi.org/10.1080/87565649109540483>
- Yang, Q., Tian, L., Huebner E. S., & Zhu, X. (2019). Relations among academic achievement, self-esteem, and subjective well-being in school among elementary school students: A longitudinal mediation model. *School Psychology, 34*(3), 328-340.

- 논문접수: 4월 4일 / 수정본 접수 5월 25일 / 게재 승인 6월 21일
- 교신저자: 김리진, 전북대학교 아동학과 부교수, ljkim@jbnu.ac.kr

Abstract

The Structural Relationship Between Mothers' Type A Behavior Patterns, and Their Children's Self-esteem, Happiness and Executive Function Difficulties

Jaehwa Song and Leejin Kim

This study investigated the structural relationship between mothers' Type A behavior patterns, and their children's self-esteem, happiness, and executive function difficulties using data from the 13th(2020) Panel Study on Korean Children. The participants in this study were 1,217 6th grade children and their mothers. The results were as follows. Children's executive function difficulties were directly affected by mothers' Type A behavior patterns, and children's self-esteem had an indirect effect on their executive function difficulties by mediating happiness. These findings imply that personal and environmental factors should be considered together when developing interventions to address children's executive function obstacles. The findings confirm that children's happiness is an important personal factor regarding children's self-esteem and executive function hurdles.

Keywords: Type A behavior pattern, Self-esteem, Happiness, Executive function difficulty